

‘현우경’ 이야기 (51)

선사 태자와 악사 왕자 ④

이 나라의 공주는 고집불통으로 유명했다. 성격은 천방지축에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공주는 온통 시끄러웠다. 시녀들은 늘 공주를 찾아다니느라 여념이 없었다. 왕 역시 공주가 왕자로 태어났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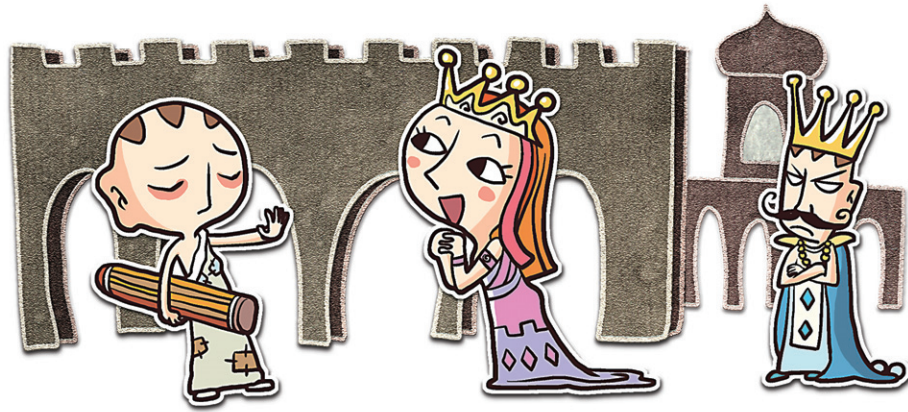
그날부터 공주는 선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계속 그의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열을 지켰다. 시녀들이 아무리 처소로 돌아가자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시녀들과 실랑이를 벌이니 선사의 거문고 소리도 멈추었다.

“누구십니까?”
선사가 물었다.
“나는 이 나라의 공주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야?”
“선사라고 하옵시다만... 공주님.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너의 음악소리가 좋구나. 너는 어디서 이런 재주를 익혔느냐?”

“아주 오래전 어머니께서 이 음악을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분이셨구나.”
선사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이 올라왔다. 선사의 눈물은 공주의 마음을 울렸다. 공주는 선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선사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다시 눈물이 올라왔다.

“너는 참으로 묘한 재주를 가졌구나. 나를 자주 울리다니.”
이제 시녀들은 공주 앞에 밥상을 놓고 갔다. 그런데 밥이 한 그릇 뿐이었다.

“왜 밥이 하나밖에 없냐. 이 자의 밥은 없는 것이냐?”
“어찌 거리의 부랑자와 밥을 같이 드시려 하십니까?”
“허허 무덤하다. 부랑자라니. 앞으로 이 자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선사와 공주는 매일매일 밥을 같이 먹게 되었다. 선사와 공주는 산책도 하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



삽화 · 강병호

다. 태자는 공주가 걱정 되었다. 공주는 선사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사는 조조해지기 시작했다.

“공주님! 이제 더 이상은 이곳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나? 내가 싫어진 것이냐?”
“어찌 제가 감히..공주님 같은 분을 싫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공주님은 이 나라 왕의 따님이시지요. 그런데 저 같이 미천한 놈과 가까이 하시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 뿐입니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거지가 아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계속 너의 옆에 있을 것이다.”

“공주님은 정말 고집불통이시군요...”
공주에 대한 선사의 마음도 깊어 갔다. 선사 역시 공주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공주에게 선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그리고 선사를 궁에서 쫓아낼 것을 명령했다. 문지기 두 명이 선사의 처소로 들어와 선사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공주는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나?”
“왕께서 이 자를 왕궁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공주가 양팔을 벌려 선사를 막아냈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나도 같이 쫓아내거라!”
문지기들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왕이 그 앞에 나타났다. 왕은 공주의 행동에 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이놈. 거리에 떠돌던 장님을 거두어 주었더니 공주를 홀리다니! 내가 너의 목숨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공주는 왕의 다리를 잡으며 벌고 또 벌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죽는다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왕은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키운 딸이 맞는지 의심이 갈 지경이었다. 분노가 마음속에 일었다. 하지만 차마 딸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선사를 공주와 함께 궁에 살게 할 수는 없었다. 왕은 오랫동안 고심했다. 이제 결정만이 남았다.

“그럼 선택을 하거라. 이 궁에 남을 것이냐. 저 자를 따라 갈 것이냐?”
“저는 선사를 따라 갈 것입니다.”
“그래? 그럼 공주의 신분을 버리겠느냐? 그럴 만큼 이놈이 대단한 말이나?”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저는 저 분이 더 소중합니다.”
왕은 너무나 화가 났다.
“여봐라. 저 둘을 궁 밖으로 쫓아내거라. 저들을 도와주는 자가 있다면 내 엄벌에 처하리라!”
둘은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나 길을 나섰다.

〈다음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53 “법(法) 조차 버려야한다.”
구성-김흥인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쭈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귀사문석 374 개로 구성

■ 제조원: (주)국민메디컬 / 경기 양주시 울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매원: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식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뇨,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자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영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영기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영기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수의 노폐물, 증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맥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물상!**
02)2004-8216
농협 063-01-9289092 (주)현대불교신문사